

[列國誌] 2부 장강의 영웅들 (270) 신포서(申包胥)의 피눈물

제10권 오월춘추

제35장 신포서(申包胥)의 피눈물 (2)

그 날 밤이었다 투신(鬪辛)은 투소와 함께 초소왕을 모시고 잤다. 자정이 지났을까. 사위가 조용한 데 문득 어디선가 솟돌에 칼 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투신(鬪辛)은 의심이 나서 슬그머니 밖으로 나가보았다. 이게 웬일인가. 동생 투회가 성난 얼굴로 시퍼렇게 날선 칼을 달빛에 비춰보는 중이 아닌가. 투신이 기겁하여 물었다.

"너는 그 칼로 무엇을 할 작정이냐?"

투회(鬪懷)가 결연한 어조로 대답했다.

"왕을 죽일 작정이오."

"네가 어찌 그런 생각을 품느냐?"

"지난날 우리 아버지는 초평왕(楚平王)에게 충성을 다했소. 그런데도 초평왕은 비무극(費無極)의 참소를 곧이듣고 우리 아버지를 죽였소. 나는 이제 초평왕의 아들을 죽여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 하오."

투신(鬪辛)이 화를 내며 동생을 꾸짖었다.

"네 무슨 망발을 지껄이느냐? 임금은 하늘과 같다. 하늘이 사람에게 불행을 주었다 해서 감히 하늘을 원수로 삼겠느냐!"

"백성이 있고, 신하가 있어야 왕이오. 백성을 죽이고 신하를 죽이는 왕은 왕이 아닙니다. 나는 왕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죽이려는 것이오."

"동생은 들어라. 원수가 죽으면 원수를 못 갚는 법이다. 즉 원수는 그 자손에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왕께선 선왕의 잘못을 통탄하시어 우리 형제에게 베풀까지 주셨다. 지금 우리 형제가 위기에 빠진 왕을 죽인다면 누구보다도 하늘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만일 그 못된 생각을 버리지 않는다면 내가 먼저 너를 죽이리라!"

투신의 강한 반대에 투회(鬪懷)는 칼을 거두고 투덜거리며 대문 밖으로 나가버렸다. 초소왕(楚昭王)은 잠결에 바깥에서 다투는 소리를 듣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틈으로 내다보니 자신의 생사를 놓고 형제간에 옥신각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투회가 생각을 바꾸어 칼을 거두긴 하였으나 초소왕은 더 이상 그 곳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

다음날, 날이 밝자 초소왕(楚昭王)은 투신과 투소를 불러 다른 곳으로 갈 뜻을 밝혔다. 일행은 의논한 끝에 수(隨)나라로 달아나기로 결정했다. 수나라는 초나라 속국으로 지금의 호북성 수현 일대다.

국성(國姓)은 희(姬).

주왕실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러나 일찍이 초나라의 무력에 굴복하여 초나라 속국이 되었다.

한편, 노복강에 진을 치고 오군의 침공을 저지하려던 공자 신(申)은 뒤늦게 영성이 함몰되고 초소왕이 달아났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는 무엇보다도 백성들이 동요할까 두려웠다. 백성들이 나라를 버리고 달아나면 초(楚)나라는 재기할 수 없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왕의 옷을 입고 왕이 타는 수레를 타고 초소왕 흉내를 내었다.

- 초나라 용사들이여. 나와 함께 오군을 무찌르자.

가짜 초소왕이 된 공자 신(申)은 비설 땅에 조정을 차려 백성들을 안심시켰다. 비설(脾洩)은 영성 부근의 작은 읍으로, 지금의 호북성 강릉시 근처다. 이 때문에 영성 일대의 백성들은 모두 비설 땅으로 피신해왔다.

그런 중에 초소왕이 수(隨)나라에 머물러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제야 공자 신(申)은 백성들에게 자신이 가짜 왕인 것을 알리고 그들과 함께 수나라로 들어가 초소왕을 알현했다. 오나라 침략으로 인해 벌어진 웃지 못할 일화 중 하나이다.

초평왕의 시체를 꺼내 구리 채찍으로 3백 대를 후려친 오자서(伍子胥)는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다.

- 기어코 초(楚)나라를 멸망시키리라!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초소왕을 사로잡아 죽여야 했다.

오왕 합려에게 다시 청했다.

"초왕을 잡지 못하는 한 초(楚)나라는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신이 군사를 거느리고 일대를 뒤져 초왕을 잡아오겠습니다."

합려(闔閭)는 허락했다.

그때부터 오자서의 초소왕 수색 작전은 시작되었다. 오자서(伍子胥)는 며칠을 수소문한 끝에 초소왕이 수(隨)나라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편지를 써서 수나라 임금에게 보냈다. 수(隨)나라는 보내 주나라 자손이었지만, 운수가에 살면서 여러 대 동안 초나라의 괴롭힘을 받아왔습니다. 이제 하늘이 오나라를 도우사 초(楚)나라에 벌을 내렸습니다. 군후께서는 초왕을 잡아 압송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오(吳)나라는 운수 일대의 땅을 수나라에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수(隨)나라는 초나라 속국이 된 지 워낙 오래 되었기 때문에 초나라의 한 고을이나 마찬가지로 지었다. 수후(隨侯)는 오자서의 편지를 받자마자 초나라 신하들에게 내보였다.

"오자서에게서 이런 편지가 왔소이다. 어찌하면 좋겠소?"

공자 결(結)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저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왕과 얼굴이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제가 가짜 왕이 되어 오자서에게로 가겠습니다."

공자 결(結)은 초소왕과 이복형제간이었으나, 희한하게도 쌍둥이처럼 얼굴이 비슷했다. 그래서 이따금씩 신하들도 착각할 정도였던 것이다.

수나라 임금은 공자 결(結)의 그러한 각오에 감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기왕 초나라를 도와 줄 바에 굳이 사람을 희생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오. 내가 알아서 오자서에게 답신을 낼 터이니, 그대들은 초왕(楚王)을 잘 보호하여 숨어 있으시오."

그러고는 말 잘하는 신하를 불러 오자서에게로 가 말을 전하게 했다.

- 우리 수(隨)나라는 대대로 초나라와 친한 사이외다. 일찍부터 동맹을 맺은 처지이기에 망명 온 초왕을 영접한 것이오. 그런데 초왕(楚王)은 자기 때문에 수나라가 곤욕을 당할까 염려하여 이미 다른 나라로 떠나가버렸소이다. 그러니 장군은 다른 나라에 수소문해보시오.

수나라 임금의 말을 전해 들은 오자서(伍子胥)는 혼란에 빠졌다.

'이상하군. 초왕이 수(隨)나라를 떠났다면 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혹 낭와를 따라 정(鄭)나라로 간

것이 아닐까?

정나라라면 오자서(伍子胥)가 한때 망명하여 숨어 있던 곳이다.

그러나 좋은 기억이 남아 있지는 않다. 자신이 모시던 세자 건(建)을 죽인 나라가 바로 정(鄭)나라였다. 그로 인해 오자서의 피눈물나는 도주 행각이 시작되지 않았던가. 새삼 분노가 치솟았다.

'그렇다. 이 기회에 초왕도 잡고 세자 건(建)의 원수도 갚아야겠다.

오자서(伍子胥)는 군사를 거느리고 정나라를 향해 쳐들어갔다.

이 무렵, 정나라 군주는 정헌공(鄭獻公)이었다.

명재상 자산(子産)에 이어 국정을 돌보던 유길(遊吉)도 죽은 후였다. 정헌공은 정정공 대에 있었던 세자 건(建)의 주살 사건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오자서가 순순히 물러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이 모든 게 초(楚)나라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망명 와 있는 초나라 영윤 낭와를 불러 협박했다.

"그대가 우리 나라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 정(鄭)나라도 위험지경에 빠졌다. 그대는 어찌할 생각인가? 스스로 오자서에게로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잡아 오자서에게 넘길 것인가. 그대가 알아서 판단하라."

낭와(囊瓦)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음을 비관한 끝에 객사에서 목을 매고 자살했다.

정헌공(鄭獻公)은 낭와의 시체를 거두어 오자서에게 내주며 말했다.

"초왕은 우리 나라에 오지 않았소. 대신 영윤 낭와의 시체를 보내니, 그대는 더 이상 우리 정(鄭)나라를 핍박하지 마오."

그러나 오자서(伍子胥)는 물러가지 않았다.

계속 신정성을 향해 육박해 들어갔다.

오자서(伍子胥)가 계속 신정성을 향해 육박해오자 정헌공(鄭獻公)은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신하들이 소매를 걷어붙이며 간했다.

"이젠 별 도리 없습니다. 오군과 싸워 이기건 패하건 양단간에 결정을 지어야 합니다."

정헌공(鄭獻公)은 고개를 저었다.

"정나라와 초나라 중 어느쪽이 강한가? 오나라는 초군도 무찔렀는데, 우리가 어찌 그들을 이길 수 있겠는가?"

그러고는 궁여지책(窮餘之策)으로 백성들에게 널리 영을 내렸다.

능히 오(吳)나라 군사를 물러가게 하는 자가 있다면, 과인은 그 사람과 더불어 이 나라를 나누어 다스리리라.

거리마다 이런 방문이 나붙은 지 며칠이 지나서였다.

한 젊은어부가 정헌공을 만나뵙기를 청해왔다.

정헌공(鄭獻公)이 불러들여 물었다.

"그대는 무슨 일로 나를 찾았느냐?"

젊은 어부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신이 능히 오(吳)나라 군사를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의 군사와 병차가 필요한가?"

"군사도 병차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신에게 배 젓는 노 하나만 주십시오. 그러면 신이 오군을 물러가게 하겠습니다."

정헌공(鄭獻公)은 젊은 어부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어찌랴. 그밖에 다른 방법이 없질 않은가. 정헌공은 신하를 시켜 배 젓는 노 하나를 그에게 내주었다.

"그대가 오자서(伍子胥)를 물러가게 해준다면 내 어찌 큰 상을 아끼리오!"

젊은 어부는 신정성을 나와 오군이 머물러 있는 곳으로 갔다. 영채 앞에 이르러 주저앉아 노를 두드리며 노래 부르기 시작했다.

갈대 속에 숨은 사람아. 갈대 속에 숨은 사람아.

허리에는 일곱 개 별이 박힌 보검을 찾구나.

그대는 강물을 건너던 때의 일을 잊었는가.

보리밥과 생선국으로 주린 배를 채웠구나.

오(吳)나라 군사들은 영문 밖으로 달려나와 젊은 어부를 잡아다 오자서 앞으로 끌고 갔다. 그는 오자서 앞에 이르러서도 연신 '갈대 속에 숨은 사람아'를 불러댔다.

노래 가사를 듣고 있던 오자서(伍子胥)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물었다.

"그대는 누구냐?"

젊은 어부는 노래를 그치고 오자서에게 배 젓는 노를 들어보였다.

"장군께서는 이 노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바로 저현(滁縣) 땅에 사는 고기잡이 노인의 아들입니다."

오자서(伍子胥)는 감격과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젊은 어부의 손을 잡았다.

"그렇구나. 그대는 분명 고기잡이 노인의 아들이구나. 그대의 부친은 나 때문에 죽었다. 나는 늘 은혜를 갚고자 했으나, 그 길을 알지 못해 한이었다."

"하늘이 도우사 오늘에야 그대를 만났도다. 그대가 노래를 부르며 날 찾아왔으니, 필시 내게 할말이 있겠구나."

그제야 젊은 어부는 찾아온 이유를 말하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아 저하(滁河)에서 고기잡이로 생계를 이어갑니다. 그런 중에 오나라와 초나라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났고, 저는 정(鄭)나라 땅으로 피신해왔습니다."

"어느 날 성안으로 들어가보니 거리마다 방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오나라 군사를 물러가게 하는 자가 있으면 큰 상을 내리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날 제 선친께서 위기에 빠진 장군을 구해준 일이 있기에 이렇듯 찾아온 것입니다. 바라건대, 장군께서는 정(鄭)나라의 죄를 한번만 용서해주십시오."

오자서(伍子胥)는 고개를 쳐들며 외쳤다.

"오호라, 오늘날 이 오자서가 있게 된 것은 다 그때의 고기잡이 노인이 나를 태워 강을 건너주었기 때문이다. 하늘이 푸르고 푸르거늘 내 어찌 그 은혜를 잊을 것인가. 그대는 안심하고 돌아가라. 내 그대의 소원을 들어주리라."

그러고는 그 날로 명령을 내려 정(鄭)나라 땅에서 군사를 물러가게 했다.

고기잡이 노인의 아들은 신정성으로 돌아가 오자서의 철군 사실을 정헌공에게 보고했다. 정헌공

(鄭獻公)은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사방 1백 리의 땅을 식읍으로 내주었다. 그 후로 정나라 사람들은 그 젊은 어부를 '어대부(漁大夫)'라고 불렀다.

오늘날도 진(秦) 땅과 유(洧) 땅 사이에 장인촌(丈人村)이라는 마을이 있다. 그 곳이 바로 정헌공이 어대부에게 하사한 땅이다.

오자서(伍子胥)는 정나라 침공을 취소하고 초나라 국경지대로 돌아왔다.

모든 길목에 군사를 배치하고 미(麋) 땅에다 영채를 세운 후 흩어진 초나라 패잔병들이 항복해오기를 기다렸다. 동시에 초소왕(楚昭王)의 행방을 찾는 일에 전념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자서에게 뜻하지 않은 서신 하나가 날아들었다.

"신포서(申包胥)?"

반가웠다. 신포서라면 오자서의 오랜 친구로 죽마고우(竹馬故友)나 다름없다. 그가 초나라 땅을 벗어날 때 길에서 만난 이후로 한 번도 소식을 전해 듣지 못했다.

그때 헤어지면서 오자서(伍子胥)는 원한에 사무쳐 이렇게 말했었다.

-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초나라를 멸망시켜 아버지와 형의 원수를 갚겠네.

그러자 신포서(申包胥)는 이렇게 응대했었다.

- 그대가 초나라를 멸망시키려들면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초(楚)나라를 끝까지 지키겠네.

그때의 기억이 오자서(伍子胥)는 아직도 생생했다.

심부름 온 사람에게 물었다.

"신포서(申包胥)는 지금 어디 있는가?"

심부름 온 사람의 대답은 이러했다.

신포서는 오군에 의해 영성이 함락당할 때 초소왕과 함께 피신하지 못했다. 최후의 순간까지 영성을 지키려다가 오군이 밀려드는 것을 보고서야 따로이 이릉 땅에 있는 석비산(石鼻山)으로 피신했다.

그 후 초소왕에게로 가기 위해 행방을 수소문하다가 오자서(伍子胥)가 초평왕의 무덤을 파헤치고 그 시체에 채찍 3백 대의 형벌을 가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신포서(申包胥)는 탄식했다.

- 심하도다. 오자서가 기어코 초나라를 멸망시키려들 작정인가?

그러고는 붓을 들어 오자서에게 편지를 쓴 것이었다.

오자서는 신포서의 편지를 뜯어보았다. 그 내용은 매우 신랄했다.

그대는 원래 초나라 신하로서 한때는 초평왕(楚平王)을 섬기기도 했네. 그런데 어찌 왕의 시체를 무덤 속에서 꺼내 시체에 매질을 하고 눈알까지 뽑을 수 있단 말인가. 아무리 원수를 갚기 위해 서라고 하지만, 그대의 행동은 너무 잔혹한 일이었네.

대저 천하의 이치는 차면 쇠퇴하는 법이네.

때로 사람이 승하면 하늘을 때려부수는 비도(非道)를 감행하기도 하지만, 천도(天道)가 바로 정해지면 비도를 감행한 사람은 반드시 천벌을 받게 되네.

나는 그대의 소식을 듣고 슬픔과 비탄을 금할 수가 없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속히 군사를 거두어 오(吳)나라로 돌아가게.

만일 그렇지 않으면 지난날 내가 맹세했던 거와 같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오군을 무찌르고 초나라를 구할 것일세.

옛 친구의 마지막 충고이네.

신포서의 편지를 읽어본 오자서(伍子胥)는 침통했다.

그는 하늘을 쳐다보며 생각에 잠겼다가 심부름 온 사람에게 말했다.

"내가 바빠서 답장은 쓰지 못하겠다. 돌아가서 신포서에게 나의 말을 전하라. '우선 초평왕(楚平王)의 일에 대해서는 사죄를 하는 바이네. 하지만 자네는 나의 마음도 알아줘야 할 것이네. 해는 저물고 갈 길은 멀기 때문에 매사 도리에 어긋나는 짓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이다."

- 해는 저물고 갈 길은 멀다.

오자서(伍子胥)가 남긴 말 중 가장 유명한 말이다. 한자성어로는 일모도원(日暮途遠)이다.

다시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 나는 이미 나이를 너무 많이 먹었다. 그러나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아직 많이 남았다. 어쩔 것인가. 초(楚)나라를 멸망시키고 중원을 제패한 후 원수를 갚아야 하는 것이 순리이겠지만, 그렇게 하자니 언제 세월이 나를 기다려줄 것인가. 그래서 나는 부득이 일을 거꾸로 하는 것뿐이다.

요즘도 할 일은 많으나 힘들고 지쳐 편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종종 입에 담은 말이다.

- 해는 저물고 갈 길은 멀기 때문에 매사 도리에 어긋나는 짓을 할 수밖에 없다.

심부름꾼은 석비산으로 돌아가 신포서에게 오자서의 말을 전했다.

신포서(申包胥)는 오자서가 기어코 초나라를 멸망시키고야 말 작정인 것을 알았다.

'그렇다면 나도 가만히 앉아서 초(楚)나라가 멸망하는 걸 기다릴 순 없다.'

신포서는 바위 위에 앉아 생각하기 시작했다. 초나라 힘만으로는 오군(吳軍)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

"타국의 도움을 받아야겠다!"

여러 나라들이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제(齊)나라도 생각해보았고, 월(越)나라도 그려보았다. 그러나 모두 여의치 않았다. 거리가 멀거나 군사력이 약했다.

어느 순간 섬광 같은 것이 신포서의 뇌리를 스쳤다.

'그렇다. 진(秦)이다!'

진나라는 초나라 바로 북쪽에 있으므로 거리도 가까웠고, 서방의 패자답게 군사력도 강했다.

무엇보다도 진(秦)나라는 초(楚)나라와 대대로 친밀한 편이었다. 초평왕의 부인인 맹영 또한 진애공(秦哀公)의 딸이 아니던가. 초소왕(楚昭王)은 진애공의 외손자인 셈이었다.

'진으로 가 도움을 청하리라!'

그 날로 신포서(申包胥)는 석비산을 나와서 서북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오군에 패해 쫓겨온 몸이라 수레 따위가 있을 리 없었다. 도보로 길을 걸었다. 발이 부르튼고 터져 발자국마다 피가 낭자했다.

그래도 신포서(申包胥)는 걷고 또 걸었다.

진(秦)나라로 향하는 길에 초소왕이 수(隨)나라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그는 발길을 돌리지 않았다.

'진군(秦軍)을 데리고 와 왕을 모시리라.'

마침내 신포서(申包胥)는 진나라 도성인 옹성(雍城)에 당도했다.

궁궁으로 들어가 진애공을 알현하고 도움을 청했다.

"오(吳)나라의 침공으로 군후의 외손자이신 우리 왕께서는 종묘사직을 잃고 초야에 숨어 계십니다. 바라건대 군후께선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군사를 일으키시어 오군을 쫓아내주시시오."

그런데 진애공(秦哀公)의 반응이 예상보다 냉랭했다.

"그대도 알다시피 우리 진(秦)나라는 서쪽 궁벽한 곳에 위치해 있어 이 나라를 지키기에도 힘에 겹다. 무슨 여유가 있어 남을 도와줄 수 있으리오. 그대는 먼 길을 왔으니 잠시 역관에 나가 편히 쉬라."

그러고는 신하 하나를 딸려 역관으로 내보내 음식과 술을 내주었다.

신포서(申包胥)는 초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

- 지금 우리 왕은 초야에 숨어 전전긍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신하된 사람이 어찌 한시인들 편히 설 수 있겠습니까?

안내해준 신하를 통해 이렇게 호소하며 거듭 군사를 일으켜줄 것을 청했다. 하지만 그 날 이후로 진애공으로부터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다.

신포서(申包胥)는 눈앞이 캄캄해왔으나 낙담하지 않았다.

이틀이 지나서 그는 결심했다.

' 이 나라에서 죽으리라.'

그는 의관을 벗어던지고 맨몸으로 역관을 나와 궁궁으로 들어갔다.

뜰 앞에 섰다.

진애공(秦哀公)은 얼굴을 내비치지 않았다. 그러나 신포서(申包胥)는 상관하지 않았다. 그는 계속 궁궁 뜰 앞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다. 밤이 되어도, 다시 날이 밝아도 그는 그 자리에 박힌 듯 서 있었다.

"초(楚)나라를 위해 군사를 일으켜주지 않으면 결코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다.

신포서(申包胥)는 여전히 뜰 앞에 서서 눈물을 뿌려댔다. 또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났다. 이렇게 칠일칠야(七日七夜)를 물 한모금 마시지 않고 통곡하며 애걸했다.

마침내 신포서의 눈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피눈물이었다. 불을 타고 흘러내린 피눈물은 그의 앞가슴을 붉게 적시었다.

신포서의 이 행동은 진애공의 귀에도 전해졌다.

그는 믿을 수가 없어 어느 날 밤 몰래 뜰로 나가보았다. 과연 신포서(申包胥)는 맨몸뚱이로 뜰 앞에 서서 붉은 피눈물을 똑똑 흘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진애공(秦哀公)은 형언하기 어려운 감동을 받았다.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듯했다.

"무서운 일이다. 신하가 임금을 생각함이 어찌 저리도 지극한가. 과연 우리나라에도 저와 같은 신하가 있을까. 초(楚)나라에 저런 신하가 있는데 어찌 초나라가 멸망할 것인가."

진애공(秦哀公)은 벅차오르는 감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어둠 밖으로 몸을 드러냈다.

"신포서여, 신포서여."

느닷없는 외침 소리에 신포서(申包胥)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진애공이 눈앞에 서 있었다. 그는 땅바닥에 엎드리며 큰 절을 올렸다.

"군후께서 이 밤중에 웬일이십니까?"

진애공(秦哀公)은 가까이 다가와 신포서의 차디찬 손을 잡아 일으켰다.

"내가 이제야 신하 된 자가 임금을 생각하는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았소. 내 그대의 청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터이니 어서 옷부터 입도록 하시오."

"임금을 바로 모시지 못해 나라를 망하게 만든 죄인이 어찌 옷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신은 나라를 구하기 전에는 옷을 입지 않겠습니다."

신포서의 이러한 대답에 진애공(秦哀公)은 또 한 번 감동했다.

그는 신포서의 손을 잡은 채 노래를 한 곡 부르기 시작했다.

어찌 옷이 없다 하리오
그대와 함께 포(袍)를 입으리라.
군왕이 군사를 일으키니
나 또한 짧은 창 긴창을 세우고
그대와 함께 원수를 갚으리라.

어찌 옷이 없다 하리오
그대와 함께 속옷을 입으리라.
군왕이 군사를 일으키니
나 또한 긴창 가지창을 세우고
그대와 함께 원수를 갚으리라.

진(秦)나라 노래는 대체로 굳세고 힘차다.

전투적인 것을 즐겼다. 이 노래 또한 군사들의 사기를 돋우는 군가 풍이다. 제목은 '무의(無依)'라고 하며, <시경(詩經)>의 <진풍(秦風)> 편에 수록되어 있다.

진애공(秦哀公)은 이 노래를 부름으로써 신포서의 요청을 수락했다고 볼 수 있다.

신포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칠일칠야 동안의 피눈물이 아닌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는 진애공의 노래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깊게 머리를 조아렸다. 그런 후 함께 내궁으로 들어가 옷을 입고 비로소 음식을 입에 대었다.

다음날, 진애공(秦哀公)은 모든 신하를 불러놓고 초나라를 위해 군사를 일으킬 것임을 선포했다. 공자 포(蒲)와 공자 호(虎)를 대장으로 임명하고 병차 5백 승을 내주었다.

신포서(申包胥)는 신바람이 났다. 두 대장을 찾아가 따로이 상세히 설명했다.

"지금 우리 왕께서는 수(隨)나라에 계십니다. 내가 먼저 수나라로 가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릴 터이니, 두 장군께서는 상곡 땅을 경유하여 동쪽으로 진군하십시오."

"그러면 닷새 후에 양양 땅에 당도할 것입니다. 그 사이 저는 수(隨)나라에 집결해 있는 초군을 모아 양양으로 가겠습니다. 양군이 협력하여 오군을 치면 어찌 승리를 거두지 않겠습니까."

그러고는 수레를 몰아 수나라를 향해 달려갔다.

마침내 신포서(申包胥)는 수나라에 당도하여 초소왕을 알현했다.

신포서에게서 그간의 얘기를 들은 초소왕의 기쁨은 이루 헤아릴 수없이 컸다.

"이제야 우리가 사직을 되찾을 수 있겠구나."

이 무렵 초나라 장수 원연과 송목 등은 패잔병을 수습하여 2만에 가까운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다.

그들은 신포서의 지시에 따라 곧장 양양으로 향했다. 수(隨)나라 군사도 이에 합세했다.

진(秦)나라 구원군은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양양 땅에 도착했다.

세 나라 장수들은 서로 반가이 인사를 나누었다. 그들은 군사들을 정돈하여 양양을 떠나 번수(樊水)를 바라보고 남하했다.

제35장 신포서(申包胥)의 피눈물 (6)

초·진 연합군 또한 영성 탈환을 위한 계책을 의논하느라 한창이었다.

공자 신(申)이 진나라 장수들에게 말했다.

"오군(吳軍)은 지금 영성을 본거지로 삼고 있기 때문에 수비가 매우 견고할 것이요. 여기에 당(唐)과 채(蔡)나라 군사들이 합세하면 영성을 탈환하기는 커녕 오히려 우리가 고립되고 맙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당나라부터 쳐서 없애버립시다. 당(唐)나라만 격파하면 채(蔡)나라는 겁이 나 감히 군사를 움직이지 못할 것이요. 그래야 우리가 마음놓고 오군을 상대할 수 있소."

전날 당나라와 채나라가 오나라를 도운 데 대한 보복 조치이기도 했다.

진군 장수 공자 포(蒲)가 무릎을 쳤다.

"기발한 생각이외다."

이렇게 해서 초·진 연합군은 영성으로 향하다 말고 당나라로 군사를 돌려 당성(唐城)을 공격했다.

졸지에 기습을 받은 당성공(唐成公)은 손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사로잡혀 목이 잘리었다. 이로써 당나라는 멸망했다. 오군이 영성을 점령한 이듬해인 BC 505년(초소왕 11년) 여름의 일이었다.

아니나다를까.

당성공의 죽음 소식을 들은 채소공(蔡昭公)은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합려로부터 원군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감히 군대를 보내지 못했다.

이에 초·진 연합군은 마음놓고 영성을 향해 내려갔다.

영성 수비를 책임진 오왕 합려의 동생 부개(夫概)는 용맹스럽기도 하였지만 자부심 또한 대단했다. 그는 자신이 영성 함락에 가장 큰 공을 세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번 직(稷) 땅 싸움에서의 패배로 인해 그의 입지는 크게 약화되었다. 손무(孫武)가 자신에게 영성 수비를 맡겼을 때 그는 속으로 불만이 많았다.

'선봉 대장인 나에게 가장 후방인 영성 안에 틀어박혀 있으라니!'

그러나 패장(敗將)으로서 대놓고 불만을 터뜨릴 수가 없었다.

합려와 여러 장수들이 각기 맡은 성으로 떠나가고 나자 부개(夫概)는 더욱 불쾌하고 우울했다. 당장에라도 군사를 몰고 나가 초·진 연합군과 다시 한 번 붙어보고 싶었다.

실제로 그는 군사들을 소집했다.

"나가 싸우리라!"

조카이자 합려의 아들인 공자 산(山)이 만류했다.

"숙부께서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어기려 하십니까?"

"조카는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단번에 초와 진나라 군사들을 격파하고 돌아올 것이니."

부개(夫概)는 자신 소속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영성 문을 나섰다. 그런데 성문을 지나면서 문득 그의 머릿속으로 엉뚱한 생각이 스쳐갔다.

'우리나라는 대대로 왕이 죽으면 동생이 왕위를 계승해왔다. 그런데 지금 왕인 형님은 자신의 아들인 파(波)를 세자로 세웠다. 이는 내게 왕위를 넘기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번에 우리 나라 군사가 모두 초(楚)나라를 치러 나왔기 때문에 지금 오성은 텅 비었을 것이다.'

'내가 이대로 본국으로 돌아가 왕위에 오른다면, 다음날 왕위 때문에 다투지 않아도 된다. 지금이 바로 그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이런 그의 망상은 한수 강변에 이르러서도 사라지지 않았다. 강가에서 서서 한참 동안 강물을 바라보던 부개(夫概)는 마침내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한수를 건너 본국으로 돌아간다. 나를 따르는 자는 부귀영화를 함께 누리리라!"

그들은 신속히 달렸다.

마침내 오나라 국경 안으로 들어섰다.

부개(夫概)는 부하들을 시켜 거짓말을 퍼뜨렸다.

- 합려는 진(秦)나라 군대와 싸우다가 전사했다. 이제 내가 형님 대신 이 나라 왕위에 오르겠다.

그리고 나서 부개는 스스로 오왕이라 칭했다. 아들 부장(扶臧)을 불러 후미를 맡겼다.

"너는 회수 강변에 머물며 합려가 돌아오는 길을 막아라."

오나라 도성 주변은 어수선했다.

유언비어가 끊임없이 나돌았다.

민심이 급격히 불안해졌다.

오나라에 남아 도성을 지키던 세자 파(波)는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정확한 소식을 알아내기 위해 매일같이 사람을 보내 조사했은 좀처럼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 그러할 때 부개(夫概)가 군사를 거느리고 오성 밑에 당도했다.

"조카는 속히 성문을 열어라. 왕께서는 이미 전사하셨다. 숨을 거두시기 전에 나에게 왕위를 물려 주셨다."

세자 파를 보좌하던 대부 피이(被離)가 황급히 말했다.

"부개 공자는 반역할 상입니다. 그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좀더 사태를 알아본 후 그를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세자 파(波)는 성 위로 올라가 아래를 굽어보며 소리쳤다.

"왕께서 전사하셨다면, 손무나 오자서 등 나머지 장수들은 어찌 되었습니까? 나는 이미 숙부의 불순한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성문을 열어드릴 수가 없으니, 숙부는 어서 영성으로 돌아가 왕께 죄를 청하십시오."

부개(夫概)는 화가 치밀어올랐다.

부하들에게 성을 공격하라 명했다. 그러나 오성은 오자서가 혼신의 힘을 기울여 쌓은 성이다.

5천 명의 군사로는 쉽게 깨뜨릴 수 없었다. 거기에 성벽 위에서 화살이 빗발처럼 쏟아져 내렸다.

부개는 하는 수 없이 성 50리 밖으로 물러나 대체를 내렸다.

그 날 밤 그는 심복 부하를 뽑아 월(越)나라로 보냈다.

월왕 윤상에게 도움을 요청할 생각이었다. 사자는 삼강(三江)을 건너 월나라로 가서 부개의 말을 전했다.

- 원군을 보내주십시오. 오성을 함락시키는 날엔 우리나라 다섯 성을 귀국에게 바치겠습니다.

부개(夫概)가 제시한 조건에 구미가 당긴 월왕 윤상(允常)은 지체하지 않고 군사동원령을 내렸다.

제35장 신포서(申包胥)의 피눈물 (7)

그 해 7월.

기남성에 진을 치고 있는 오왕 합려에게 연이어 급보가 날아들고 있었다.

- 당(唐)나라가 초군의 기습을 받고 멸망했습니다.

- 채(蔡)나라가 초나라의 기세에 놀려 원군 보내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오자서(伍子胥)도 그 소식을 듣고 기남성으로 달려왔다.

외부로부터의 원군이 차단당했다는 것은 곧 영성을 중심으로 한 기남성, 맥성 등의 고립을 뜻하는 것이다. 예삿일이 아니었다.

손무와 오자서가 합려와 마주앉아 대책을 의논하는 중에 또 하나의 심상치 않은 보고가 들어왔다.

"무엇 때문인지 공자 부개(夫概)가 자신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오(吳)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보고를 보내온 것은 부개와 함께 영성 수비를 책임진 공자 산(山)이었다.

합려(闔閭)가 부개의 귀국의 의미를 알지 못해 고개를 갸웃거리는데, 오자서가 대뜸 말했다.

"부개 공자가 돌아간 것은 필시 반역하려는 뜻에서일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합려로서는 설상가상(雪上加霜)이었다.

합려(闔閭)는 금세 얼굴이 어두워졌다. 한편으로는 분노의 기색이 피어올랐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좋겠소?"

"부개(夫概) 공자는 한갓 필부의 용기밖에 없습니다. 별로 염려할 바 아닙니다. 다만, 이 기회에 월(越)나라가 군사를 일으키지나 않을까 걱정입니다. 왕께서는 속히 본국으로 돌아가셔서 내란을 진압하십시오. 서두르지 않으면 후회합니다."

합려(闔閭)는 긴가민가 하면서 오자서의 말에 따랐다.

손무와 오자서가 영성에 남아 초. 진 연합군을 상대하기로 했다.

합려(闔閭)는 백비만을 데리고 배를 타고 강물을 따라 내려갔다. 그들이 하류에 이르러 한수를 건넜을 때였다. 합려는 세자 파(波)가 보낸 사자와 만났다. 사자는 서둘러 오성 소식을 전했다.

"부개(夫概) 공자가 반역을 했습니다. 그는 왕이라 자칭하고 월(越)나라와 내통했습니다. 지금 월나라 군사들이 도성을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합려(闔閭)는 경악과 함께 크게 분노했다.

"오자서의 말이 맞았구나. 설마했는데, 부개 이 놈이 나를 배신하다니.....!"

이때부터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리기 시작했다.

회수 이남의 예장 부근에 진을 치고 있던 부개의 아들 부장(扶臧)이 합려의 귀국을 방해하기 위해 군사를 몰고 내려왔다.

합려(闔閭)는 그와 싸울 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군사들을 풀어 예장 일대에 수백 장의 방문을 붙이게 했다.

방문(榜文)의 내용은 이러했다.

나는 오왕 합려다.

부개를 따라 먼저 돌아온 장수나 군사들은 이 글을 보는대로 과인에게로 달려오라. 즉시 오는 자에게는 예전의 지위를 보장하겠지만, 조금이라도 늦게 오는 자는 추호의 용서도 없이 참하리라!

예장 일대에 포진하고 있던 부개의 군사들은 방문(榜文)을 보자 그 즉시로 창을 메고 합려에게로 투항했다. 반 이상 군사를 잃은 부개의 아들 부장(扶臧)은 싸울 마음을 잃고 몰래 군중을 빠져나와 곡양(谷陽) 땅으로 가 숨었다.

이로써 합려(闔閭)는 손쉽게 오강을 따라 오성 근처까지 진군할 수 있었다.

그 무렵, 부개(夫概)는 오성 주변의 백성들을 징집하여 자기 군대에 편입시켰다. 월(越)나라 군사가 오는대로 합세하여 오성을 들이칠 작정이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합려(闔閭)가 나타났다.

징집된 백성들은 합려가 살아 있다는 것을 알자 앞다투어 군중에서 달아났다. 남은 것은 본래의 자기 군사뿐이었다.

부개(夫概)는 어쩔 수 없이 그 군사만으로 귀환하는 합려와 맞서 싸웠다.

합려(闔閭)가 부개를 향해 큰소리로 꾸짖었다.

"내가 너를 수족처럼 아끼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반역했느냐?"

"너 또한 요왕(僚王)을 죽이고 왕위에 오르지 않았느냐? 나는 네 방법을 따랐을 뿐이다."

합려(闔閭)는 격노했다.

"백비는 나를 위해 저 역적놈을 사로잡아라!"

백비가 달려나가 부개의 군사를 들이쳤다. 부개(夫概)가 백비를 상대하는 동안 합려는 대군을 이끌고 측면 공격을 시도했다.

양군은 한데 어우러져 싸웠으나 숫자상으로 비교가 되지 않았다.

한나절도 채 지나기 전에 부개(夫概)는 대패하여 강변으로 달아났다.

마침 부개의 아들 부장(扶臧)이 강변 근처에 숨어 있다가 도망쳐오는 아버지를 발견했다. 그들은 함께 배를 타고 강을 건너 예장을 지나 송(宋)나라로 망명했다.

반란군을 진압한 합려(闔閭)는 백성들을 위로하며 오성으로 들어갔다.

세자 파(波)가 성문을 열고 나와 부왕 합려를 맞이해들었다. 그 기쁨이 채 사라지기 전에 세작이 달려와 보고했다.

- 월(越)나라 군사들이 우리 영토로 침범해 들어왔습니다.

합려(闔閭)는 자신의 힘으로 그들을 상대하기가 벅차다고 여기고 급히 사람을 보내 손무(孫武)와 오자서(伍子胥)에게 귀환령을 내렸다.

- 급히 귀국하라!

합려의 소환장을 받은 손무와 오자서는 은밀히 철군 준비를 서둘렀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회군을 발표하지 않았다. 잘못하다간 초. 진 연합군으로부터 퇴로를 차단당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손무(孫武)가 말했다.

"이대로 돌아가기에는 아깝군요."

오자서가 막 대답하려고 할 때 수하 장수 하나가 들어와 고했다.

"초(楚)나라에서 서신을 보내왔습니다."

오자서가 서신을 받아 걸봉을 보니 바로 신포서(申包胥)가 보낸 글이었다.

내용은 이러했다.

자네는 영성을 점령했으나, 아직 초나라를 없애지는 못했네. 이는 하늘이 초(楚)나라를 돕고 있다는 증거라 할 수 있네. 자네는 망명할 때 내게 이런 말을 했었지.

- 내 반드시 초나라를 멸망시키고야 말리라.

그에 대해 나는 이렇게 대답했지.

- 나는 반드시 초(楚)나라를 지켜내겠노라.

지금까지 자네와 나는 각기 소신대로 행동해왔네. 그러면서도 우리는 서로 미워하지 않았네.

오자서여, 초나라를 더 이상 핍박하지 말라.

나 또한 더이상 진(秦)나라 힘을 빌리지 않으리라.

오자서(伍子胥)는 손무에게 신포서의 서신을 보이며 말했다.

"이번에 우리는 초나라 영성을 점령하여 종묘를 태우고 사직을 쓸어 버렸소. 비록 진(秦)나라에게 패하기는 했지만, 별로 큰 타격을 입지 않았소."

"옛 병서의 말에 '징조가 보이면 나아가고, 가망이 없으면 물러서라'고 하였소. 지금 초(楚)나라는 우리 형편을 모르는 모양이오. 신포서의 말을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속히 오(吳)나라로 돌아갑시다."

손무(孫武)가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우리가 아무런 조건없이 그냥 물러간다면 이는 이기고도 진 것이 됩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공자 승(勝)을 위해 힘쓰지 않소?"

오자서는 손무의 말뜻을 금방 알아들었다.

"그렇군요. 내가 공자 승을 잊고 있었구려."

즉시 붓을 들어 신포서에게 보내는 답신을 썼다.

내용은 이러하다.

자네도 알다시피 지난날 초평왕(楚平王)은 죄 없는 세자 건(建)을 추방하고 충신들을 수 없이 죽였네. 나는 그 당시의 분을 참을 수 없어 오늘에까지 이르른 것이네.

옛날 제환공은 형(邢)나라를 존속시키고 망한 위나라를 일으켜준 적이 있네. 또 진목공(秦穆公)은 세 번씩이나 진(晉)나라 임금을 세워주었네.

하지만 그들은 영웅답게 조금도 영토를 탐하지 않았네. 나 오자서 또한 비록 재주는 없지만, 의기는 쇠하지 않았네.

죽은 세자 건(建)의 아들 공자 승(勝)은 지금 오나라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네. 초나라는 공자 승을 소환하여 죽은 세자 건의 제사라도 받들게 해줄 아량은 없는가. 그렇게 해주기로 약속한다면 나 또한 속히 물러가겠네.

신포서(申包胥)는 오자서의 편지를 읽고 공자 신과 공자 승(勝)에 관한 일을 의논했다.

공자 신(申)은 대범한 사람이었다.

"억울하게 죽은 세자 건의 아들을 데려오는 건 평소 나의 뜻이었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시오."

곁에 있던 심제량(沈諸梁)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끼여들었다.

"세자 건(建)은 쫓겨난 사람입니다. 그 아들 공자 승(勝)은 우리 초나라

제35장 신포서(申包胥)의 피눈물 (8)

- 본국으로 돌아간다!

오자서와 손무는 회군길에 올랐다.

영성을 떠나기 전 오(吳)나라 군사들은 초나라 왕궁에 있는 보화와 비단등을 몽땅 내어 수레에 실었다. 아울러 국경지대에 있는 초(楚)나라 백성 1만여 호를 오나라 황무지로 강제 이주시켰다.

오(吳)나라는 땅에 비해 인구가 현저히 부족했다. 늘 농사 짓는 데 애를 먹었다. 따라서 이런 식의 대규모 강제 이주는 인구를 늘려야 하는 오나라로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방편 중의 하나였다.

오자서와 손무는 각기 두갈래 길로 나누어 귀환했다. 손무(孫武)는 수로를 따라 오성으로 향했고, 오자서(伍子胥)는 예장 땅을 경유하는 육로를 선택했다.

오자서(伍子胥)가 선택한 육로는 10여 년 전 그가 오(吳)나라로 망명하던 때의 바로 그 길이였다. 그때는 초군에게 쫓기느라 하룻밤 사이에 머리카락과 수염이 하얗게 셀 만큼 초조와 불안에 시달렸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정복자로서의 여유와 감상이 온몸에 배어 있었다. 눈에 익은 풍경을 볼 때마다 오자서(伍子胥)는 망명 당시의 시절을 떠올리곤 했다.

'동고공(東果公).....!'

자신을 도와준 첫 은인이었다.

그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오자서가 있었을까.

오자서의 발길은 자신도 모르게 역양산(歷陽山)을 향하고 있었다.

'조금이나마 은혜를 갚고 싶다.'

그러나 동고공이 살던 역양산 골짜기에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았다.

동고공(東果公)이 살던 모옥은 불타버렸는지 흔적조차 남아 있지 않았고, 사람의 그림자 또한 찾아볼 수 없었다.

'어디로 갔을까!'

그는 혹시나 하여 사람을 용동산(龍洞山)으로 보내어 황보눌(皇甫訥)의 소식을 알아오게 했다.

용동산으로 갔던 사람이 돌아와 고했다.

"황보눌(皇甫訥)의 종적도 찾을 수 없습니다."

오자서는 탄식했다.

"고고한 분들이로다!"

오자서(伍子胥)는 동고공이 살던 집터에 두 번 절을 올리고 역양산을 내려왔다.

이번에는 소관(昭關)으로 향했다.

지난날과 달리 소관에는 파수 보는 초(楚)나라 군사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당시 가슴 조이던 일을 생각하니 새삼스레 분노가 솟았다. 오자서(伍子胥)는 군사들을 시켜 소관을 불태워버렸다.

다시 울양(潁陽) 땅 뇌수가로 갔다. 세월이 흘렀건만 강물은 변함없이 흐르고 있었다. 오자서(伍子胥)는 뇌수 강변에 서서 굽이치는 물길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내가 지난날 배가 고파 이곳에서 빨래하는 여자에게 밥을 구걸한 적이 있다. 그때 그 여자는 내게 밥을 주었을 뿐 아니라 강물 속에 몸을 던져 죽었다. 그때 내가 바위에다 글을 지어 써넣은 것이 있는데, 지금도 남아 있는지 모르겠구나."

오자서(伍子胥)는 기억을 되살려 바위를 찾아 덮어놓았던 흙을 치웠다.

바위에는 지난날에 쓴 글자가 완연히 남아 있었다. 감개에 젖은 오자서는 그 여인에게 은혜를 갚고자 했다.

그러나 그는 여인의 집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천금을 뇌수(瀨水) 강물에 던져넣으며 외쳤다.

"빨래하던 여인이여, 만일 영혼이 있다면 내가 그대를 저버리지 않았음을 알려주기 바라오."

오자서(伍子胥)가 그 곳을 떠나 한 마장쯤 갔을 때였다.

길가에 한 노파가 앉아 있다가 지나가는 오(吳)나라 군사들을 보고 대뜸 통곡하기 시작했다. 군졸

하나가 노파에게 다가가 우는 까닭을 물었다.

"노파는 어찌하여 우리를 보고 우는 게요?"

노파가 눈물을 씻으며 곡절을 얘기했다.

"나는 팔자가 기박하여 딸과 단둘이서 살았었소. 내 딸은 서른이 되도록 시집을 가지 않았지요. 그런데 10여 년 전에 내 딸이 뇌수(瀨水)가에서 빨래를 하다가 도망자인 듯한 한 나그네에게 밥을 대접했다고요."

"딸은 이 사실이 알려질까 염려하여 결국 뇌수(瀨水)에 몸을 던져 죽었지요. 그 후에 들으니 그 나그네가 초나라의 망명객인 오자서(伍子胥)장군이라고 합디다. 그런데 이번에 오자서 장군이 초(楚)나라를 크게 무찌르고 돌아오는 중이었는데, 내 딸은 이 기쁜 소식을 알기나 할려는지...그대들을 보니 딸이 생각나서 눈물이 절로 나는구려."

군졸이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들의 대장이 바로 오자서(伍子胥) 장군입니다. 이번에 따님에게 보답하려고 이 곳을 찾았으나 집을 알지 못하여 결국 천금을 뇌수(瀨水) 강물에 던져 넣었습니다. 노파는 어서 가서 그 천금을 건지시오."

그 얘기를 들은 노파는 황급히 뇌수가로 가서 오자서가 던져 넣은 천금을 건져냈다. 이후로 사람들은 그 뇌수가를 '투금뢰(投金瀨)'라고 불렀다.

손무(孫武)는 장강의 빠른 물살을 타고 10여 일 만에 오성에 당도했다.

그때 월(越)나라 군사들은 막 오성 교외로 진격해 들어오고 있는 중이었다. 손무는 합려에게 귀국 보고를 올리자마자 다시 군사를 거느리고 월군을 맞아 싸우러 나갔다. 월왕 윤상(允常)은 이미 손무에게 한 번 크게 패한 적이 있었다.

손무라는 이름만 들어도 겁을 먹었다. 그는 손무가 영성에서 돌아왔다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전군에 명을 내렸다.

- 오(吳)나라 치는 일은 뒤로 미루겠다. 모든 군사는 본국으로 돌아가라.

월군이 오나라 땅에서 완전히 철수했을 때 오자서도 오성으로 돌아왔다.

지난 1년 반 사이 오왕 합려는 꿈같은 세월을 보냈다.

난공불락이라 여겨지던 초(楚)나라 수도 영성을 점령하고 자신의 이름을 중원 전역에 떨치지 않았는가.

이 모든 공이 병법의 귀재인 군사(軍師) 손무와 당대 최고의 풍운아 오자서 덕분이라고 생각했다. 그 중에서 합려는 손무를 으뜸 공로자로 삼았다. 그에게 많은 상과 높은 벼슬을 내릴 작정으로 손무를 불렀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손무(孫武)가 사람을 보내 대신 아뢰었다.

- 신은 이제 그만 은퇴할까 합니다. 상과 벼슬은 필요 없습니다.

합려는 놀랐다. 내관을 보내 만류했으나 손무는 여전히 사양했다.

다급해진 합려는 오자서에게 명하여 무슨 수를 써서라도 손무를 붙잡으라고 분부했다. 오자서(伍子胥) 또한 손무의 은퇴 소식에 놀라 황급히 그의 집으로 달려갔다.

오자서(伍子胥)가 손무의 손을 잡고 물었다.

"내 그대와 함께 큰 뜻을 이루려 하는데, 그대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려 함이오?"

손무(孫武)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대는 천도(天道)를 아시오?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지요. 내가 보기에 지금 오왕은 사방에 걱정거리가 없어졌소. 강성하면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면 쇠락해집니다. 한 개인의 일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을 이루고 물러서지 않으면 반드시 큰 불행이 닥칩니다. 나는 평생 병법을 연구해온 사람이고. 병법의 극의(極意)가 무엇인줄 아시오? 바로 물러날 때 물러날 줄 아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生)도 생각해 보면 싸움이나 다름없습니다."

"나는 다만 지금 내가 물러날 때라는 것을 알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대 또한 나와 함께 물러남이 어떠한지요?"

오히려 오자서에게 함께 은퇴하자고 권하는 것이었다.

오자서(伍子胥)는 3일 낮 3일 밤을 만류했으나 끝내 손무의 뜻을 꺾을 수 없었다.

결국 손무(孫武)는 오자서에게 작별을 고하고 표연히 오성을 떠났다.

합려도 어쩔 수 없이 그의 은퇴를 승낙하고 황금과 비단을 가득 실은 수레를 뒤따라보냈다.]

그러나 손무는 길을 가는 도중 가난한 백성들에게 그 황금과 비단을 모두 나눠주었다.

그 후 손무의 행적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서(史書) 어디에도 기록이 남겨져 있지 않다. 오늘날 병법의 대가라고 불리는 손무(孫武)는 이렇듯 홀연 나타났다가 홀연 사라져버렸다.

마치 한 줄기 바람처럼.

다만 그가 남긴 것은 오늘날까지도 병가의 경전으로 평가받고 있는 <손자병법> 13편과 '손무(孫武)'라는 이름 두 자다.

과연 그는 병법의 대가답게 나가고 물러남 또한 절묘했다고밖에 할 수 없다.

- 지망지존(知亡知存).

이것이 손무(孫武)가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치려 했던 오의(奧義)가 아니었을까.

제35장 신포서(申包胥)의 피눈물 (9)

손무가 표표히 사라지고 난 뒤 오왕 합려(闔閭)는 오자서를 재상으로 삼았다. 그는 옛날 제한공이 관중을 '중보(仲父)'라 불러 신하를 특별히 존경의 예로 대한 것처럼, 오자서를 '자서(子胥)'라고 불러 대우했다.

합려(闔閭)는 백비에게도 많은 상과 높은 벼슬을 내렸다.

그를 태재(太宰)로 삼아 오자서와 더불어 국정을 보살피게 했다.

이어 오성 서쪽 성문을 '파초문(破楚門)'이라 고쳤다.

서쪽 문으로 나가 초(楚)나라를 깨뜨리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붙였다. 남쪽 경계에는 돌을 쌓아 요새 하나를 만들었다. 월(越)나라 군사 침공을 막기 위한 요새였다. 돌로 쌓은 관문이라 하여 요새 이름을 석문관(石門關)이라 명명했다.

오나라의 월나라에 대한 경계가 강화되자 월(越)나라에서도 이에 질세라 오나라에 대한 경비를 철저히 했다. 월왕 윤상(允常)은 절강 어귀에다 큰 성을 쌓았다. 그리고는 성을 고릉(固陵)이라 부르게 했다. 견고하게 지킨다는 뜻이다.

이때부터 오나라와 월나라는 더욱 사이가 나빠졌다.

BC 505년 오왕 합려 10년 무렵의 일이었다.

초군 대장 공자 신(申)과 결(結)은 오군이 빠져나가고 난 빈 영성으로 돌아왔다. 영성 안팎의 광경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다. 왕궁과 집들은 불타버리고, 창고는 약탈당해 비단한 조각도 남아 있지 않았다.

"아, 아!"

공자 신은 자기도 모르게 탄식했다.

동문 밖으로 나가보았다.

파헤쳐진 초평왕(楚平王)의 무덤이 을씨년스러움을 더해주었다. 공자 신(申)은 눈물을 뿌리며 조각조각 흩어진 초평왕의 뼈를 거두어 다시 매장했다. 궁으로 돌아와 불탄 종묘를 새로 짓고 사직단도 다시 쌓았다.

왕궁과 성안 거리를 어느 정도 복구하고 낮을 때 신포서(申包胥)는 수나라에 머물러 있는 초소왕을 모시러 갔다.

초소왕(楚昭王)은 수나라 임금에게 거듭 감사의 말을 전하고 영성으로 향하는 배에 올라탔다. 배는 운수를 따라 빠르게 내려갔다. 운(郢) 땅을 지나 운수 하류에 이르렀다. 그 곳 사람들은 운수 하류를 청발수(淸發水)라고 부른다.

장강(長江)과 만나는 지역이다.

초소왕을 태운 배는 장강으로 들어서자마자 물길을 거슬러 올라갔다.

이때부터 배는 느릿하게 움직였다. 초소왕(楚昭王)은 배 난간에 기대어 사방 경치를 둘러보았다. 지난 2년여 가까운 시간이 한바탕 사나운 꿈 같았다. 자신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악몽이었다.

피난 중에 겪었던 온갖 고생스러웠던 일들이 주마등(走馬燈)처럼 떠올랐다 사라져갔다.

'다시 이 강을 거슬러올라갈 줄이야.'

감개가 새로웠다.

배가 장강과 한수가 만나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였다.

물 위로 이상한 물건이 떠내려오는 게 보였다. 크기는 말(斗)만했고, 빛깔은 선홍색이었다.

"저것이 무엇일까?"

초소왕(楚昭王)은 노 젓는 자를 시켜 그 이상한 물건을 건져오게 했다. 여전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이 물건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나와보라."

그러나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초소왕은 칼을 뽑아 그 물건을 둘로 쪼갰다. 속은 오이와 비슷했다. 먹어보니 매우 맛이 좋았다. 초소왕(楚昭王)은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신하들과 함께 먹었다.

"이 과일 이름을 알려면 아마도 꽤나 박식한 학자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구나."

한수와 만나는 지점을 지나 운중(雲中) 땅으로 들어섰다. 초소왕(楚昭王)은 우중 언덕에 배를 대고 나서 사방을 둘러보았다.

"이 곳이 지난날 과인이 도적을 만났던 곳이로구나. 내가 어찌 이 곳을 잊을 수 있으리오. 대부 투신(鬪辛)은 이 곳에다 조그만 요새를 쌓아라. 그러면 길 가는 나그네들을 도적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투신(鬪辛)은 초소왕의 명령에 따라 후일 운중과 몽(夢) 땅 사이에 요새 하나를 쌓았다. 지금도 운몽현에 가면 초왕성(楚王成)이란 곳이 있다. 그 곳이 바로 당시 요새를 쌓았던 터라고 한다.

마침내 초소왕(楚昭王)은 영성으로 돌아왔다.

길가에 무수히 굴러다니는 해골들이 다시 한 번 그의 가슴을 찢어지게 했다. 왕궁으로 들어 먼저 생모인 맹영(孟嬴)에게로 갔다. 모자는 서로 얼싸안고 대성통곡했다.

초소왕(楚昭王)이 흐느끼며 말했다.

"소자가 불민하여 이런 큰 변을 당했습니다. 언제 이 기막힌 원한을 설치(楔齒)할 수 있을런지 눈앞이 캄캄하기만 합니다."

맹영(孟嬴)이 그런 초소왕을 따듯이 위로했다.

"무엇보다도 왕께서 무사히 환궁하셨으니 다행입니다. 먼저 상벌을 밝히고 백성들을 위로하여 안정시키십시오. 그런 후에 힘을 길러 지난날의 강성함을 회복하십시오."

다음날부터 초소왕(楚昭王)은 심기일전하여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다. 그는 우선 새로 지은 종묘 사직에 제사를 지내고 초평왕의 능묘에 참배했다. 이어 문무백관을 불러들여 말했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겪은 불행은 다 과인의 죄요, 다시 나라를 찾게 된 것은 모두 경(卿)들의 공이요. 이번 일을 계기로 상하가 합심하여 우리 초나라를 부흥시킵시다."

초소왕(楚昭王)은 잔치를 베풀어 진(秦)나라 장수와 군사들을 위로하여 돌려보냈다. 아울러 논공행상을 실시했다.

그는 먼저 자신의 이복형인 공자 신(申)을 영윤으로 삼고, 공자 결(結)을 좌윤으로 삼았다. 그리고 영성 수복에 결정적인 공을 세운 신포서에게 우윤의 벼슬을 내렸다.

그런데 신포서(申包胥)는 초소왕의 상과 벼슬을 사양했다.

"신이 진(秦)나라 군사를 청해 오군을 무찌른 것은 초(楚)나라를 구하기 위해서였을 뿐, 결코 제 일신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왕께 나라를 돌려드렸으니, 신의 소원은 이루어진 셈입니다. 어찌 더 이상의 이익을 바라겠습니까?"

그 날 밤이었다.

신포서(申包胥)는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몰래 영성을 떠났다. 아내가 신포서에게 물었다.

"당신이 애를 써서 초(楚)나라를 다시 찾았습니다. 왕이 당신에게 상을 내리는 것은 당연한데, 당신은 어찌하여 이렇듯 도망치시는 것입니까?"

신포서(申包胥)가 대답했다.

"지난날 오자서(伍子胥)는 내게 초나라를 쳐서 부형의 원수를 갚겠다고 말한 적이 있었소. 그러나 나는 친구간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오자서를 도망치게 내버려두었소. 즉 나는 오자서가 초(楚)나라를 치도록 방조한 셈이요. 이런 죄가 있는데, 나라를 구한 공이 있다 하여 상을 받는다는 것은 나의 수치요."

신포서(申包胥)는 처자를 데리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제35장 신포서(申包胥)의 피눈물 (10)

신포서(申包胥)가 처자를 데리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간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초소왕(楚昭王)은 백방으로 사람을 놓아 신포서의 행방을 찾았으나 끝내 그를 찾지 못했다.

그 후에도 신포서(申包胥)를 보았다는 사람은 일절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초소왕(楚昭王)은 신포

서가 살던 영성 집에도 정문(旌門)을 세우고 이를 '충신지문(忠臣之門)이라고 했다.

초소왕(楚昭王)은 신하들에게 다시 말했다.

"내가 운중 땅에서 도적을 만났을 때 왕손 유우(由于)는 나를 대신하여 도적의 창에 찔렸다. 내 어찌 그 마음을 잊을 수 있으랴."

그러고는 신포서가 사양한 우윤직을 왕손 유우에게 내렸다.

그 밖에 심제량, 종건, 송목, 투신, 투소, 원연 등의 장수들에게도 각기 벼슬을 올리고 땅을 하사했다.

이때의 일과 관련하여 <춘추좌씨전>에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해온다.

초소왕(楚昭王)은 모든 사람들에게 상을 내렸으나 오직 한 사람에게만은 참수형을 내리려 했다.

다음 아닌 남윤 미(麴)였다.

- 내가 강을 건너려는데 남윤 미는 배를 타고 있으면서도 배를 태어주기는커녕 나를 욕하고 그냥 가버렸다. 어찌 이런 자를 그냥 내버려둘 수 있으리오.

남윤 미(麴)가 참수형을 당하게 되었다는 말을 들은 공자 신(申)은 황급히 초소왕에게로 가 말했다.

- 지난날 영윤이었던 낭와는 늘 지난 일의 원한만 생각했다가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왕께서는 어찌하여 낭와와 똑같은 짓을 반복하려 하십니까?

초소왕(楚昭王)은 무릎을 치며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

- 옳은 말이오. 나는 나의 지난날의 과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소.

그러고는 남윤 미(麴)의 결박을 풀어주고 그대로 남윤 벼슬에 있게 했다.

초소왕의 도량을 말해주는 일화다.

또 이런 일화도 기록하고 있다.

초소왕(楚昭王)은 포상의 대상자에 투회(鬪懷)도 포함시켰다. 투회는 투신의 동생으로, 초소왕이 운 땅에 피란갔을 때 왕을 죽이려고 칼을 간 바 있는 바로 그 사람이다.

영윤인 공자 신(申)이 의아해서 물었다.

- 투회(鬪懷)는 지난날 왕을 시해하려던 자입니다. 벌을 내려야 하거늘 오히려 상을 내리려 하시니 어인 까닭이십니까?

초소왕(楚昭王)이 웃으며 대답했다.

- 그가 나를 죽이려 했던 것은 자기 아버지 원수를 갚기 위해서였소. 그러므로 그는 효자요, 효자가 어찌 충신이 될 수 없겠소.

초소왕은 기어코 투회(鬪懷)를 불러 대부로 삼았다. 이에 모든 신하는 초소왕의 도량에 감복하여 그 덕을 높이 칭송했다.

이후 초(楚)나라는 몰라보게 달라졌다.

왕과 신하들이 조금도 허튼 짓을 하지 않고 재건에 힘을 쏟았다. 초소왕(楚昭王)은 오나라를 견제하기 위해 월나라와 더욱 친선을 도모했다.

월왕 윤상의 딸을 새 부인으로 맞아들이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여동생인 계미를 월나라에 시집보내려 했다.

그러자 계미가 초소왕에게 말했다.

"여자는 외간 남자와 가까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날 운 땅으로 파란갔을 때 대부 종건(鍾建)의 등에 업혀 도적의 화를 피한 적이 있습니다. 저의 몸은 이미 종건의 것입니다. 어찌 다

른 사람에게 시집갈 수 있겠습니까?"

초소왕(楚昭王)은 계미의 말을 기특하게 여기고 그녀를 종건에게 시집보냈다. 초소왕의 매부가 된 종건(鍾建)은 음악에 밝았으므로 사악(司樂)대부라는 관직에 올랐다.

초소왕(楚昭王)은 국력 회복에 온 힘을 쏟았으나 이미 오군의 발길에 짓밟힌 영성에 마음을 잃었다. 또 영성 내부를 살살이 알고 있는 오군(吳軍)이 다시 쳐들어오는 것도 염려되었다.

- 도성을 옮기는 것이 어떠한가?

신하들은 초소왕의 의견에 찬성했다.

영성을 수복한 이듬해인 BC 504년(초소왕 12년)에 초나라는 수도를 약(郢)이라는 땅으로 옮겼다. 약은 지금의 호북성 자충현으로, 양양 땅 정남쪽 일대다.

한때는 독립국이었으나 초(楚)나라에 의해 멸망했다.

초소왕(楚昭王)은 새 도읍인 약을 신영(新郢)이라 부르게 했다. 사람들에 따라서는 언영(鄢郢)이라고도 부른다. 독립국이었을 때 나라 이름이 언(鄢)이었기 때문이었다.

신영으로 도읍을 옮긴 초소왕(楚昭王)은 더욱 심기일전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종일 나라일을 살폈다. 형벌을 줄이고 세금을 감했다. 인재를 양성하고 군사를 조련했다. 모든 관문을 수리하고 변방을 굳게 지키게 했다.

그 무렵, 오나라에 있던 공자 승(勝)이 초나라로 돌아왔다.

초소왕은 약속대로 공자 승(勝)을 백공(白公)에 봉하고 허(許) 땅에다 백공성을 쌓아주었다. 이때부터 공자 승은 백씨(白氏)가 되어 대대로 허 땅에서 살았다.

또 한 사람이 초(楚)나라로 망명해왔다.

자신의 형인 합려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오나라 공자 부개였다.

부개(夫概)는 반란에 실패하자 송(宋)나라로 달아났다가 초소왕이 지난날의 일에 감정을 품지 않는다는 소문을 듣고 초나라로 망명해온 것이었다.

과연 초소왕(楚昭王)은 부개를 너그럽게 받아들였다.

그에게 당계(堂谿) 땅을 식읍으로 내주었다. 이때부터 부개(夫概)는 당계에 살면서 당계씨(堂谿氏)가 되었다.

초소왕(楚昭王)의 선정은 10년간 계속되었다.

이리하여 초(楚)나라는 다시 예전의 강성함을 되찾았다.